

보도사점	보도자료 배포 후 즉시		
담당부서	정책기획팀	담당자	임현아
이메일	lha8170@koreafilm.or.kr	연락처	02-3153-2058

보 도 자 료

한국영상자료원, 광복절 기념 상영회 및 전시 공개

:영화 <영웅> 주연배우 의상 전시 및 영화 <코코순이> 상영



▲ <영웅>(윤제균, 2022) 의상 전시 모습



▲ <코코순이>(이석재, 2021) 스틸 이미지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 이하 '영상자료원')은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한국영화박물관 상설전시실에서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을 다룬 <영웅>(윤제균, 2022)의 주연배우 의상 4벌을 전시한다. 또한, 광복절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시네마테크KOFA 2관에서는 위안부 관련 영화 <코코순이>(이석재, 2021)를 상영한다.

□ 영화를 통해 기리는 애국정신

영화 <영웅>은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으로 2009년 초연된 국내 창작 뮤지컬 <영웅>을 <해운대>(2009), <국제시장>(2014)으로 천만 관객을 극장으로 이끈 윤제균 감독이 뮤지컬영화로 재구성했다. 특히, 뮤지컬 초연부터 14년간 안중근을 연기한 정성화와 김고은, 나문희가 주연을 맡아 뮤지컬영화에 도전했다는 점에서 2022년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되는 의상은 안중근 의사(정성화 역)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할 때 착용한 의상 1벌과 명성 황후가 시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독립운동가가 된 설희(김고은 역)의 한복, 드레스 각 1벌 그리고 아들을 사형대로 보내는 안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나문희 역)가 착용한 한복 1벌, 총 4벌이다.

해당 의상은 영상자료원의 수집 캠페인 일환으로 제작사 JK필름에서 기증받았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 본편 영상과 시나리오 등 부속 자료는 영상자료원으로 납본되어 영구 보존되고 있다. 하지만 의상과 소품 등 박물류는 영화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봉이 끝난 뒤 폐기 처분되는 등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고자 영상자료원은 2014년부터 수집 캠페인을 실시하여 영화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매년 주요 작품의 의상과 소품 등 박물류를 기증받고 있다.

이번 의상 전시는 광복절을 맞아 안중근 의사와 독립운동가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것은 물론 한국영화 유산의

보존 가치와 중요성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한편, 광복절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마련한 기념 상영회에서는 르포 무비<코코순이>(이석재, 2021)를 상영한다. <코코순이>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되었으며 보고서에 기록된 코코순이라는 한 소녀의 행적을 따라, 세계 각지의 자료들을 발굴하고 기록을 추적한다, 이번 <코코순이> 상영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노력을 조명하고자 한다.

영화 <영웅>(윤제균, 2022)의 의상은 한국영화박물관 상설전시실에 전시되어있으며 <코코순이>(이석재, 2021)는 15일(화) 시네마테크KOFA 2관에서 상영된다. 관람료는 무료다.

<광복절 기념 상영 프로그램> 링크 안내

https://www.koreafilm.or.kr/cinematheque/programs/PI_01485